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등록 교우 : 문금란(로템목장)
2. 오늘은 '아버이 주일'입니다. 낡고 길러 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전합니다.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3. 다음 주일예배 기도담당은 신태식 장로님입니다. 오후찬양예배 기도담당은 김경미 권사님입니다.
4. '봄철 가정심방'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해당 가정은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13일(주일)-임시 당회로 쉽니다, 5월19일(토)-이승미 집사님 가정입니다.
5. 전교인 봄 야유회를 5월 22일(화) 가평 조종면에 위치한 '모닝 펠리스'(박상우-김민자 집사)에서 가집니다. 지금부터 일정 조정 잘 하셔서 전 교인 모두 참석바랍니다.
6.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나는 대로 임시당회로 모입니다. 시무장로님들은 참석바랍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5월 20일	5월 27일	6월 3일	6월 10일
예배기도(오전)	신태식 장로	오진석 집사	권용기 집사	신동기 집사	
예배기도(오후)	김경미 권사	목장주일	이영선 권사	최윤정 권사	
주일식사담당	양떼 목장 (황희용 권사)	늬바 목장 (유숙정 권사)	에스더 목장 (오효근 권사)	로템 목장 (정진숙 권사)	
토요일청소	아론 목장 (5/19)	갈렙 목장 (5/26)	에덴 목장 (6/2)	돌로스 목장 (6/9)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7월 16~21일에 있을 몽골단기선교를 위해서 남·여 선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2. 남·여선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4. 봄철 가정심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양강암 선교사님(미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쉼터(국내) 사역자를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427번지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시교독	다같이
*경배찬송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다같이
대표기도	김윤식 장로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다같이
*결단송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30

인도 : 허영진 목사

경배와 찬양	찬양인도 : 오승현집사	다같이
묵상기도	은혜를 구하며	다같이
찬송	214장 (통 349장)	다같이
기도	오효근 권사	
특별찬양	누구든지	
성경봉독	행 5:1-11	인도자
말씀선포	‘교회의 정체성’	허영진 목사
기도	허영진 목사	
교회소식	인도자	
찬송	210장 (통 245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요한복음 강해 허영진 목사
요 6:67-71 ‘영적 고백’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19)

새벽기도회 새벽 5:30 시편 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시 74:1-23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1)-(5)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가정의 달에 부친다’

교회 마당 한 쪽에 두 그루의 느티나무가 떡 하니 버티고 섰다. 이곳 구암리로 교회가 이사 온 후로 늘 함께 있어 보면 볼수록 대견하고 늠름하기까지 하다. 어디 그 뿐이랴. 잎이 나고 지는 과정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실감나게 알려 준다. 세월이 흐를수록 나무가 달리 보인다. 봄 나무는 빨리 성장하지만 무르고, 겨울 나무는 더디 자라지만 단단하다. 잎이 나고 질 때의 밀도도 다르다. 계절 따라 바뀌는 나무의 성장 과정에 우리 삶을 비춰본다. 해마다 촘촘해지는 나무의 나이테는 우리 인생의 여정과 같다. 그 무늬와 결에 따라 꽃과 열매가 달라지는 이치도 닮았다.

다만 느티나무 성질상 보기 좋은 꽃을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아, 겨울은 다르다. 앙상하게 뻗은 가지마다 하얀 눈꽃송이를 매달고 있으니 그것도 꽃이라면 꽃이다. 그러던 것이 봄을 지나며 다시금 잎을 내기 시작했다. 두 주 전만해도 분명 두 그루였는데, 어느새 잎이 무성해지면서 두 그루가 마치 한 그루처럼 보인다. 그리고는 한 낮이면 따가운 햇볕을 가려주는 고마운 그늘이 되었다. 아침 저녁로 새들이 찾는 보금자리가 되었다. 이도 시간이 지나면 나무의 성장과 함께 어느 새 훌쩍 사라질 것이다. 그럼에도 다시금 찾아올 것을 알기에 소망의 끈을 붙들고 있다.

5월에는 어린이날(5일)과 어버이날(8일), 스승의 날(15일), 부부의 날(21일), 성년의 날(셋째 월요일)이 잇달아 있다. 징검다리 기념일에 지출이 많아 걱정도 되지만, 돈 들여 챙길 가족이 없다면 얼마나 쓸쓸한가. 가정은 식구들이 힘들 때 위로가 돼 주는 방이자, 일터에서 돌아와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다. 부모의 역할이자 부모의 은덕이다. 저울 한쪽에 세계를, 다른 한쪽에 어머니를 놓고 달면 지구 무게가 더 가벼울 것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와 부모의 심성을 함께 보듬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되새긴다. 어린이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Written by 허영진